

##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 과정 척도 개발\*

김 인 숙<sup>+</sup>

(가톨릭대학교)

이 은 영

(가톨릭대학교)

하 지 선

(가톨릭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기존의 자활 관점이 경제적 자활에 초점 맞추어져 특정시점의 '결과'로서 이해되어왔다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당사자의 경험이 내포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한다. 이를 위해, 성매매피해여성 34명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분석된 자활경험에 기반하여 자활 과정 척도문항을 구성하였고, 성매매피해여성 243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척도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4개 요인, 24문항의 척도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는 .823에서 .871로 높았다. 더불어, 척도 영역별 점수분포 양상의 검토와 함께 자활과정 척도의 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비가시적인 자활의 과정을 가시화시키는 척도개발을 통해 기존 자활개념과 성과측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자활 현장의 현실성을 보다 반영할 수 있다.

주제어 : 성매매피해여성, 자활 과정, 척도개발, 질적연구, 양적연구

\* 본 연구는 2008년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자활성과 진단척도 개발” 연구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주저자

## 1. 서언

성매매피해여성을 지원하는 현장에서 '자활'이 도입된 것은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이다. 그러나 '선도보호'와 '사회복귀'를 통해 성매매피해여성을 지원하는 패러다임이 '자활'로 바뀌게 된 것은 성매매방지법 제정 외에도 사회복지 영역에서 형성된 '자활의 봄'(김수현, 2000)이 한 몫을 하였다. 이로 인해 성매매피해여성을 지원하는 현장은 '자활' 패러다임으로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내야 했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는 자활의 성과를 양화시켜 가시화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성매매피해여성 지원 현장에서 '자활'을 두고 벌어진 논란이다. 기존의 일반적인 자활 영역에서 적용되는 자활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기존의 자활은 '경제적 자활' 중심의 '결과로서의 자활'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김인숙, 2008). 기존의 자활 개념을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즉, 성매매피해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자활 개념을 새롭게 재정의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재정의에 근거해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성고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였다(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2007).

이 새롭게 정의되는 자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자활을 경제적인 것과 비경제적인 것의 결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와 과정의 결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란의 핵심 중에서 자활을 결과와 함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토대로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자활의 과정을 양화시켜 측정해 낼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 것이다.

자활은 한 번에 도약되어 결과를 가져오는 그 무엇이 아니라 "시간" 요소가 가미된 긴 시간이 필요한 개념이다. 사실, 자활사업의 제도화 초기인 2000년 당시만 해도 자활사업을 설계했던 청와대 "삶의 질 향상 기획단"은 "자활"이라는 개념을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성격으로 하되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최준, 2007; 김인숙, 2008). 이런 점에서 자활을 '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자활의 역사에서 보면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이미 낫익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비가시적인 자활의 과정을 가시화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양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의 과정을 어떻게 측정해 낼 수 있을까? 그것은 성매매피해여성 외부 사람들의 목소리 보다는 내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될 필요가 있다. 즉,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의 과정은 결국 자활 경험에 대한 그녀들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나야 되고, 그 목소리로부터 자활의 과정이 분석되어야 하며, 이에 기반해 측정을 위한 문항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렇게 성매매피해여성 당사자로부터의 경험을 통해 도출되는 자활 과정에 대한 측정은 외부자적 관점에서 도출된 자활의 과정보다 자활의 역사성과 맥락성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자활 정책이 관리자의 입장이 아닌 당사자의 경험에 입각한 정책으로 전화되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를 통털어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의 과정을 척도화하는 시도가 전혀 없었고, 국내에서도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에 관한 연구가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되는 첫 연구이다. 물론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에 관한 소수의 연구가 있다(김윤희, 2005; 우순열, 2006; 정수연, 2007; 김인숙, 2008).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제반 정보나 현황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자활의 과정과 성과에 대한 뚜렷한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는다. 자활과정에 대한 파악은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이 어떠한 형태로 진화되어 가는지, 그 진화양상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관여하고 있고 각 요소들의 관계양상이 상호 어떤 역동을 갖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의 부족은 그만큼 연구의 틀을 구체화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특히, 척도개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34명)의 자활 경험을 가진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활의 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자활과정의 문항을 도출해내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자활 과정 척도는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과정이 총체적으로 조망되고 평가되는 의미를 담보할 것이며, 당사자 중심, 내부자 관점이 반영 되는 성과 측정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기존 자활개념과 성과측정이 가져왔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다차원적인 자활성과 측정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제공하리라 본다.

## 2.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인 자활 연구에 비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연구의 수준도 기술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 일반적인 자활 연구들이 자활성공의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이며, 자활성공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에 관한 연구는 그 특수성과 '과정'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있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자활 연구들이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 연구보다 자활에 관한 더 폭넓은 지점이나 다양성을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자활연구들은 자활의 다측면 중에서 경제적 자활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자활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와 같은 개념적 작업에 소홀하였다. 그 결과 자활에 관한 논의가 특정 반경을 벗어나지 못한 채 동어반복이 계속되는 형국이다. 이에 비하면,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 연구는 비록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 자활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자활 개념의 문제나, 자활을 결과로서가 아닌 과정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에 대한 강조가 뚜렷이 나타난다.

기존의 일반적 자활 연구에서 강조하는 자활성공의 기준들은 다양하다. 자활의지(박광덕, 2004) 및 근로의욕고취(이형하·조원탁, 2004; 손능수, 2005), 사회적응력 향상(이상록, 2003; Dean, 2003; 이형하·조원탁, 2004; 정원오·김진구, 2005), 고용안정성(Raheim, 1997; Cancian, 2001; 강병구, 2002;

Anthony, 2005; 손능수, 2005; 오영훈, 2005; 이영철·김소정, 2009), 취업 및 창업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임동진, 2001; 강병구, 2002; 김주섭, 2006; 박진희, 2006; 이석원·정희정, 2007; 이영철·김소정, 2009), 실제 개인소득(임금) 및 가구소득의 증가(허만형, 1995; 강병구, 2002; 손능수, 2005; 오영훈, 2005; 김주섭, 2006; 박진희, 2006), 자활프로그램 탈피(강철희, 1997) 등을 자활성공 혹은 자활성과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준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활의 결과를 중심으로 경제적 자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핵심수단으로 개인의 경력에 필요한 기술과 태도의 준비를 통해 '특정 시점에서 경제적으로 일정 정도의 선에 도달하는 상태'를 자활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들 연구 중에는 근로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형성이나 생활태도 변화(이상록, 2003) 자체를 자활의 성과로 고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나 외부의 지원이 필요 없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결과 중심의 경제적 자활이라는 확실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활관점에 대해 신명호(2006)는 "근로의욕 고취와 기술획득이라는 경제적 자립요소들만 획득하면 자연스럽게 경제적 자립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행 자활지원제도가 논리모델의 오류를 갖는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과 함께 최근에는 현재의 자활 관점과 효과 측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상록·진재문, 2003; 이상록, 2003; 정수연, 2007). 나아가 경제적 자활이 곧 자활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이영하·조원탁, 2004)도 지적되었다.

이들 지적에 내포된 의미는 여러 가지이다. 자활의 스펙트럼이 경제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 특정 시점에서의 결과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자활 패러다임에는 자활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총체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자활의 과정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기존의 낡은 태도를 수정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만으로 자활이 구성된다는 것은 자활 현장의 '현실성'을 반영하지 않은 경로 밖에 볼 수 없다(김수현, 2000; 신명호, 2006).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 연구는 일반적 자활 연구와는 다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자활을 과정으로 보고 그 과정을 탐색한다든가(김윤희, 2005; 정수연, 2007), 자활의 개념을 성매매피해여성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구성한다든가(김인숙, 2008), 자활의 경험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것(우순열, 2006)이 그것이다. 이들은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에 있어 자활은 단기적인 역량강화 및 지원을 통해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정'이 수반된다고 보았다. 즉, 성매매피해여성의 변화를 확실적인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당사자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지난한 과정으로 이해하였다(김윤희, 2005; 정수연, 2007). 또한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은 이들이 처한 특수성과 경험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성매매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경험에 주목하였다(우순열, 2006). 그렇다고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에 관한 연구가 자활의 성과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아주 최근에 이르러 성매매피해여성의 탈성매매를 측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최희경·정경숙, 2009).

이외에도 기존의 자활 개념을 개인화된 자활, 결과로서의 자활, 경제적 자활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성매매피해여성 당사자들(성매매피해여성과 현장 실천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적합한 자활의 개념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도한다(김인숙, 2008). 이 작업을 통해 김

인숙(2008)은 기존의 자활 개념을 독립과 상호의존의 결합, 경제적 자활과 자주적 자활의 결합, 결과로서의 자활과 과정으로서의 자활의 결합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 자활 개념의 틀과 스펙트럼을 확장한다.

이처럼 성매매피해여성을 둘러싼 자활 연구는 비록 소수이고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일반적 자활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새로운 지점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즉, 자활을 바라보는 시각자체를 달리함으로써, 자활을 특정 순간에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내는 단면적인 상태로 규정하지 않고, 성매매피해여성의 경험과 과정이 반영된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으로서 자활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아울러 자활의 외부자 즉, 자활을 관리하는 측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활의 내부자인 자활에 임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본 자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3. 연구방법

#### 1) 질적·양적 연구방법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과정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연구방법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였다. 우선 질적 조사 방법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자활과정척도 개발에 필요한 문헌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현장 및 당사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척도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인터뷰 분석결과를 토대로 구성된 자활과정척도문항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양적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89개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조사대상

심층 인터뷰 참여자의 선정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의 소개에 의해 전국의 총 97개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 가운데 15개의 시설을 선정한 뒤, 해당 기관의 활동가가 판단하기에 성공적인 자활과정을 거치고 있는 여성으로 총 34명이 선정되었다. 이를 위해 질적 표집에서 세평적 표집(reputational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세평적 표집은 해당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언이나 추천이나 대중적 평가에 따라 사례를 선택하는 방법이다(조용환, 1999). 성공적인 자활 경험을 갖는 여성을 선택한 것은 자활과정 척도 개발을 위해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자활의 전 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34명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심층인터뷰 참여자 일반적 특성

정보제공자	기관 종류	연령	자활서비스 기간
여성1	자활지원센터	20대후반	4년
여성2	자활지원센터	20대후반	4년
여성3	자활지원센터	40대초반	1년
여성4	자활지원센터	50대후반	4년
여성5	자활지원센터	20대후반	6개월
여성6	성매매피해상담소	20대후반	2년
여성7	성매매피해상담소	40대중반	3년
여성8	성매매피해상담소	30대초반	1년
여성9	성매매피해상담소	20대후반	4년
여성10	성매매피해상담소	20대후반	4년
여성11	현장상담센터	30대후반	1년6개월
여성12	현장상담센터	50대중반	1년 6개월
여성13	자활지원센터	40대후반	1년
여성14	자활지원센터	50대후반	5년
여성15	청소년지원시설	10대후반	6개월
여성16	일반지원시설	30대초반	2개월
여성17	일반지원시설	40대초반	2년3개월
여성18	일반지원시설	40대후반	7개월
여성19	일반지원시설	40대초반	3년
여성20	일반지원시설	30대초반	3년
여성21	자활지원센터	30대후반	8개월
여성22	자활지원센터	30대중반	4년
여성23	청소년지원시설	10대후반	3년
여성24	청소년지원시설	10대후반	1년
여성25	청소년지원시설	10대후반	3년
여성26	청소년지원시설	10대후반	3년
여성27	청소년지원시설	10대후반	3년
여성28	청소년지원시설	10대후반	2년
여성29	성매매피해상담소	30대중반	1년
여성30	성매매피해상담소	20대후반	1년
여성31	일반지원시설	20대후반	4년
여성32	일반지원시설	20대후반	2년
여성33	성매매피해상담소	20대중반	5년
여성34	성매매피해상담소	20대후반	1년

설문조사는 전국의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총 97개 기관 중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사무국을 제외한 89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기관별로 설문지 5~7부씩을 배포하였고, 이중 45개 기관으로부터 243부의 설문지가 회수(45.5% 회수율)되어, 불성실한 응답 및 무응답 처리 없이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반적 특성		N	%
연령	15세이하	2	0.82
	16-19세	41	16.87
	20-29세	114	46.91
	30-39세	63	25.93
	40-49세	12	4.94
	50세이상	10	4.12
	무응답	1	0.41
	Total	243	100.0
거주지역	서울	71	29.22
	부산	19	7.82
	인천	12	4.94
	대구	20	8.23
	광주	9	3.70
	대전	15	6.17
	울산	11	4.53
	경기	17	7.00
	충남	7	2.88
	전북	11	4.53
	전남	11	4.53
	경북	7	2.88
	경남	23	9.47
	제주	10	4.12
Total	243	100.0	
소속기관	일반성인쉼터	111	45.68
	청소년쉼터	40	16.46
	상담소	29	11.93
	자활지원센터	37	15.23
	그룹홈	18	7.41
	현장지원센터	7	2.88
	무응답	1	0.41
	Total	243	100.0
입소기관	6개월미만	65	26.75
	6개월이상-1년미만	46	18.93
	1년이상-2년미만	62	25.51
	2년이상-3년미만	22	9.05
	3년이상	29	11.93
	무응답	19	7.81
	Total	243	100.0

### 3) 자료분석

#### (1) 인터뷰 자료분석

인터뷰에 대한 자료 분석은 Kvale이 제시한 요약(응축), 범주화,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의미의 해석의 방법과 Corbin과 Strauss의 근거이론분석 중 개방코딩과 축코딩의 방법을 사용하였다(신경림, 1998).

우선, 자활의 과정을 중심 축으로 각 사례별로 스토리텔링을 구성하였다. 각 사례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사례간에 비교하였고, 이를 통해 사례 간 자활 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사례 간에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연령을 기준으로 성인여성 성매매피해여성 과 10대 성매매피해여성 간에 일부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발달과정의 상이함으로 인한 차이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해 나온 이야기 구조를 기반으로 자료에 대한 세부분석에 들어갔다. 세부분석은 Corbin과 Strauss의 개방코딩과 축코딩 방법을 활용하여 의미단위와 범주, 범주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4개의 주제와 11개의 범주, 46개의 하위범주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발견된 주제와 범주들은 앞서 언급한 스토리텔링 구조에 피드백 되었다. 이 피드백을 통해 이전의 이야기 구조가 보완되고 일부 변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활과정이 분석되었고, 이 분석 결과로부터 자활과정을 측정하는 문항을 추출하였다.

#### (2)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인터뷰 분석결과를 토대로 구성된 자활과정 척도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다음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전문가집단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내용타당도는 연구자 혹은 다른 전문가들이 척도가 개념을 구성하는 측면들 전체를 다루는지를 판단하는 것(Rubin and Babbie, 2001)으로, 본 연구에서는 작성된 측정도구에 대해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의 현장 활동가들과 관련전문가들 총 30여 명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둘째, 전문가들로부터 검증받은 자활과정 예비척도의 각 문항이 척도를 구성하기에 적합한가를 평가하기 위해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각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등의 빈도분석 자료를 통해 극단 점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초문항분석을 실시하였고, 또한 개별 문항과 척도의 총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Vaimax 회전과 주요인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의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계산한 후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을 묶어주는 분석기법으로, 이를 통해 자활과정 척도의 타당성 검증과 더불어 문항 내부에 존재하는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활과정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

해 문항의 내적일치도를 나타내는 크론바하 알파값으로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 ver.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자활과정 분석과 문항구성

##### 1)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과정

성매매피해여성의 심층면접을 통한 자활과정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표 3〉 참조). 〈표 3〉에 의하면,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자활의 과정은 사회적 보호망의 경험, 관계를 통한 신뢰형성, 새로운 자기욕망의 생성, 새로운 자기욕망의 확장이라는 4개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단계는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도 꿈꾸어 보지도 못한 “새로운 자기욕망”을 핵심 축으로 진전된다. 따라서 이들 4개 과정은 새로운 자기욕망을 ‘조건화’하고, ‘준비’하고, ‘구축’하고, ‘확장’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성매매피해여성들은 사회적 보호망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자기욕망을 조건화하며, 신뢰관계 형성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자기욕망을 준비하고, 새로운 자기욕망의 생성을 통해 새로운 자기욕망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자기욕망을 확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표 3〉 성매매피해여성 자활 과정 범주화

주제	범주	하위범주
사회적 보호망의 경험	도와주는 사회적 존재의 경험	1. 울타리 없는 가족배경 2. 체제를 유지시키는 사회규범의 내면화 3. 유린적 관계의 경험 4. 타자화된 자아 5. 사회배제의 내면화 6. 다른 세상에서의 접촉
	보호의 경험	7. 직접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8. 절박한 순간으로부터의 구출 9. 보호의 공간에서 안심함
	안전감의 획득 ; 깨어지는 관성	10. 합몰상태의 지속 11. 기대와 두려움의 공존 12. 기존자리에의 미련 13. 기망을 지닌 바닥치기
관계를 통한 신뢰형성	타인을 통한 신뢰 형성	14. 일관적인 모습을 통한 믿음 형성 15. 새로운 관계의 경험 1) 축할만큼의 관심과 보살핌의 경험 2) 무조건적 믿음 3) 파트너쉽 4) 동료 간 공감 5)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짐 16. 경계허물기 17. 관계 내 믿음 형성

관계를 통한 신뢰형성	자기신뢰의 형성	18. 기꺼이 도움받기 19. “가능한 존재”로서 자기 재인식 1) 외부 긍정의 메시지 수용을 통한 자기긍정 2) 일상적 부대낌을 통한 자연스러운 투영 3) 달라진 사회구성원(모임)으로서의 정체형성 20. 스스로 부여하는 자기존재감 21. 반박의 힘의 생성 22. 세상에 대한 지각 변화 : 합류할 수 있는 세상으로 인지
새로운 자기욕망의 생성	자기욕망의 발아	23. 기본 조건의 형성 1) 법적 문제의 해결 2) 의료적 문제의 해결 3) 학력 기술 습득 24. 소소한 성공의 경험 25. 차이없음의 가능성 발견
	자기욕망의 구체화	26. 주된 세상에 속한 일의 경험 27. 현실성 부여 28. 일상의 조율 29. 통제감의 회복
	평범한 세계에의 합류	30. 욕망의 발견 31. 끊임이 없는 욕망생성 32. 자발적으로 지지자원 획득에의 욕구형성(지원의 연장의 바램)
새로운 자기 욕망의 확장	사회적 자본의 확장	33. 기관의 사회적 자본의 전이 34. 스스로 돕는 장치 형성하기
	자기 위치에 대한 시선변화	35 기관관점의 경험 36 기관관점의 수용 37.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난 삶의 재구성 38. 내면화된 규범의 제고 39. 성매매 다시보기 40. 주권찾기의 행동화 41. 자매애의 경험 42. 자매애로부터 발로되는 행동화
	욕망 충족의 범위 확장	43. 일상생활에로 여성정체성의 스며들 44. 여성고유의 정체성 찾기 45.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정된 자로서의 정체성 획득 46 스스로 구성하는 사회적 구성체

(1) 새로운 자기욕망의 조건화 단계 : 사회적 보호망의 경험

도와주는 사회적 존재의 경험 여성들의 어린시절, 주로 빈곤이나 가정불화로 인해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거나, 가족 서로는 제 한 몸 지탱하기 벅차 서로를 감싸기 어렵다. “부모님은 너무 무심”하고, “가출한 엄마” 때문에 “동생을 맥이고 입히는”, “손발이 다 얼어터지도록 빨래를 해내야”하는 돌봄의 역할이 무리하게 가중된다. 가족으로부터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오게” 되었지만, 이들의 열악한 삶은

노동 구조 속에서 반복된다. 번듯한 직장을 가지기에는 학력이나 기술을 가질 기회가 없어 “어차피 몸으로 때워야 되는 일”을 할 뿐이다. 일찍이 세상의 힘의 논리가 내면화된 딸들에게 “일단은 재워줄 수 있고, 먹여줄 수 있는 곳을 찾아”, “티켓다방”이나 “유리방”으로 흘러들어간 것은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작동한다.

업소생활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상실케 하고, “완전 무력”하게 만들어, 기왕에도 적어왔던 자기 돌보기에 대한 의미마저 상실케 한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방치되고 착취당하는 ‘몸의 훼손’은 자기 몸과 마음을 자기가 조절할 수 없다는 무기력을 갖게 하고, 자신에 대한 ‘돌봄 경험의 박탈’은 희망 없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 안게 만든다. 이런 측면에서 현장지원을 나온 상담가들의 행위는 여성들에게 쉽게 납득되기 어렵다. 그러나 법률과 의료지원 서비스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오고, 동시에 사회가 자신에게 보호와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다.

**보호의 경험** 업소탈출 이후, 성매매피해여성들은 업소주의 위협이나 사채업자로부터의 빚 독촉 등 직접적인 위협에 목도된다. 누구도 자신을 돕지 않는 고립된 공간에서 이 같은 위협은 여성들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를 경험케 한다. 하지만, 기관의 법률지원은 이러한 직접적 고통으로부터 여성을 구출할 수 있는 제반조건을 마련하고, 위협을 막아주어, 보호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생애 처음 혹은 강렬하게 자신을 보호해주는 울타리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 부분을 여기서는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저 혼자만 끙끙 앓았던 충치를 뽑아준 것 같고 여기가 없었으면 지금도 솔직히 빗에 허덕이면서 밤에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저를 여기서 구해 주신 것 같아요(여성5)

오래된 빛과 아픈 몸은 생활전반에서 자기구속의 힘을 강력하게 만들어, 자기 내부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물리적으로나 관념적으로 세상과의 소통을 제한시키는 주요기제로 작동한다. 하지만, 법률지원·의료지원 과정에 참여하면서 “거기 있을 때는 내가 피해 받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된다. 즉, 위험상태에서의 적극적인 구출과 보호의 경험은 물리적인 도움 뿐 아니라, 고립된 심리적 공간으로부터 구출됨을 동시에 의미한다. 기관 서비스를 받고, 기관에 머무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해체적인 가족의 경험으로부터 업소생활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일찍이 쉽게 경험해 보지 못한 ‘보호감’이다. 이러한 보호감으로부터 여성은 자신의 상황에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관의 상담,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눈을 갖는다.

**안전감의 획득 ; 깨어지는 관성** “진짜 그런 게 있어?” “굉장히 마음 설레면서” 기관에 왔지만, 이들 여성들이 마음을 여는 속도는 빠르지 않다. 왜 이렇게 내게 잘해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의심하고, 이 사람(활동가)의 끝은 어디인지 확인하고자 의심의 눈초리를 견지하며, 이 도움이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의구심을 갖는다. 그들에게 아직 활동가들은 “정상세상”에 속한 자로서, 자신들과 전혀 다르고, 상관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글쓰기 프로그램이나 그리기를 도구로 한 프로그램, 혹은 강의

활동(자활사업의 일종)과 사무업무 등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멀게만 느껴져 온 '정상세상'에 속한 활동과 일거리이기 때문에 그 시도자체가 어색하다. 자신의 무능에 대해 "이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밖에 못쓰나"라는 비난이 염려되고, "기대하다가 실패하면 너무 힘들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이 한 칸에 존재해 여전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성은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확인되기도 한다.

한편, 새로운 관계도 두렵기만 하다. 업소에서 맺어온 동료 여성들은 "내 밑바닥을 다 아니까" "무슨 행동을 해도 용서"가 되지만, "다른 상대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되는 관계라서 "넋 놓고 살았는데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살라니까 혹시 실수하면 어떡할까" 불안하고 두렵다. 익숙한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어서, 들었던 한쪽 발을 더 내디딜지, 그냥 내려놓을지를 쟁이질 하게 만든다. 아직은 "낮에 햇빛을 보는 것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까봐"두렵다. 하지만, 기관은 여성이 곤두박질 친 자신을 목격하는 과정 내내 함께한다. 초라한 자신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여성은 때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선생님을 은근 괴롭히기도", 재유입을 반복하기도 한다. 하지만, 동 기간 기관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보호의 경험은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 사이에서 주저하는 마음에 중심 추를 달게 한다.

## (2) 새로운 자기욕망의 준비 단계: 관계를 통한 신뢰 형성

**타인을 통한 신뢰 형성** 입소 혹은 기관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 또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함께 한 사람은 활동가이다. 활동가는 의심되리만큼 친절하고 일관적인 도움을 준다. 처음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같은 일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 "가식적으로 한대라고 생각했는데", 활동가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행위를 일상에서 목격함으로써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게 아니면" 못할 행위라고, "아 내가 저 사람한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내가 잘못된 생각이구나"라고 인지하게 된다. 이 새로운 관계역동은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이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며, 특별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구심점이자, 조언을 통해 자기성장을 꾀하도록 돕는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 활동가와의 끈끈한 부대끼를 통해 자신을 도구로서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더욱 공고해진다.

무조건적인 믿음에서부터 파트너십에 이르기까지 여성은 이전 관계와 다른 관계 역동, 즉, 신뢰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상담소와 쉼터의 선생님들은 이들 여성에게 "엄마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 "존중받는다는 경험을 시켜주는 사람", "이유 없는 사랑을 주는 사람", "끊임없이 지지해 주고 보살피 주는 사람", "사람 대우를 해주는 사람", "항상 그대로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활동가와의 이러한 신뢰의 경험은 단순히 수용되어지고, 신뢰가 생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낯선 세상에 대한 마음의 경계를 푸는 역할도 하게 한다.

**자기 신뢰의 형성** 활동가로 대표되는 타인과의 신뢰관계와 든든한 힘을 가진 기관에 대한 특별한 소속감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도록 돕는다. 자기신뢰는 여성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소통방식을 취하도록 돕고, 그들이 말하는 "정규의 세상"으로 들어갈 의욕을 생성시킨다. "사회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성격 자체가 틀리니까”, “우리가 뭐 얌전한 사람들도 아닐 뿐더러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성격이 좋겠어요? 뼈뿔어질대로 뼈뿔어지고”라고 이야기하던, 성매매피해여성은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나누는 사람들의 지지적 언어와 조언들에 “조금 조금씩” “짚어”간다. 기관동료와 활동가의 호의적인 반응을 자기내부로 투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매매피해여성은 이전의 소극적인 모습과는 달리 자신의 의견을 주저 없이 표현하거나, 크게 웃거나 적극적으로 활발한 면모를 생활 속에서 드러낸다.

선생님들 예전에 말하면 ‘예..’ 이랬는데 이제는 ‘왜왜 그게 그런데요?’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도 ‘왜 그게 그렇게 됐는데?’ 자기주장을 내세울 수 있다는 거죠(여성 2)

이러한 자기표현의 당당함과 소통의 욕구는 신뢰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하기도 하지만, 관계가 갖는 힘의 속성이 달라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관은 사회구조적으로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써 여성에게 “든든한 뺨”이 된다.

기관은 “내 집”처럼 느껴지고, 마치 “친정”과 같다. 그래서 기관은 단지 도약을 위한 자원으로서가 아닌 자신의 내면적 일부와 맞닿아 있는 공간으로 여겨지고, 여성은 특별한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게 된다. 이로써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가감 없이 바라보게 되며, 낯설고 자신에게 무력감만 주었던 “정상적 세계”의 규범에 동화되어 간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참는 걸 배워서” 싸움도 말리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비슷하게라도 따라 가려고 노력”한다. 사회적 규칙을 피해 도망 다니지도, 또 사회적 규칙을 외형화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규칙을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다.

### (3) 새로운 자기욕망의 구축 단계: 새로운 자기욕망의 생성

**자기욕망의 발아** 타인과 자신에 대한 신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는 직업기술이나 학력, 법률 및 의료 지원을 받는 동안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조건이 형성되고, 일상의 작은 성공경험들이 축적되어 ‘무언가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싹튼다. 법적문제의 해결은 여성들에게 단순한 채무해결이 아닌 정서적 회복을 동반한다. 학력 및 기술 습득도 미래를 꿈꾸는데 장애를 주어왔던 조건들을 완화한다. 더불어, 성매매피해여성들은 기관 입소 이후 소소한 성공경험을 통해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고, 긍정해 가는 법을 배우면서 자기 내면 속에 새로운 욕구, 새로운 욕망과 꿈의 싹을 키워나가게 된다.

철학이나 인문학 이런거 배웠을 때 얘기하고 과제를 하고 그럴 때 보면 사람들이 뭐 재네 무슨 대학 나왔나봐 조금씩 우리를 관심을 가져준. 그런것 같애요 그래서 그때 다 많이 (재유입했다가 기관으로) 돌아간것 같애요. 철학하면서(여성2)

이것은 자기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경험이자 자신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차이없음’의 가능성의 발견이다. “이제 더 이상 제가 뭘 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가, “운전면허증을 따고”,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에 다니고, 일시적이지만 “직장생활”

을 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정말 용됐다”라고 생각한다. 이에는 프로그램에서 주어진 역할을 완수해보는 것에서부터 대중교통 이용법 익히기, 외부의 작은 모임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경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 소소한 경험을 통해 “나도 할 수 있구나”하는 자기 확인에 이르게 된다.

여성은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목표도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던 ‘무의하고 없는 존재’에서 ‘없었던’ 자기라는 존재를 찾는 경험을 한다.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라는 존재의 경계를 인식하면서 엄연히 존재하는 자신을 찾았다는 자각에 이른다. “그래 맞아, 나도 사람이야, 여자야. 맞아, 나도 살아갈 수 있어”라는 자각은 엄연히 존재하는 나를 확인하는 순간이다. 이 ‘나’는 이전에 아예 ‘없던’ 나와 다르며, 어떤 가능성과 힘을 가진 ‘나’로 자각된다. 이 새로운 ‘나’에 대한 자각으로 여성은 어느 순간 무엇인가를 할 의욕을 갖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욕망갯기는 이전의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이다.

**자기욕망의 구체화** 의욕 혹은 욕망은 이들 여성에게 ‘목표(혹은 꿈, 비전)’로 응축되어 구성된다. 목표가 생기는 것이 곧 어려운 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임을 경험하고, 목표를 세워야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활동가 혹은 기관동료의 긍정적인 모델링과 피드백은 여성의 자활에 대한 욕망과 결정적으로 병합되어 가면서, 추상적 이었던 욕망의 모양새는 긍정적인 타자와의 협력 속에서 서서히 구체적인 양상을 갖추어간다. 여성들은 내가 할 수 있는 혹은 내가 욕망할 수 있는 것의 다양함을 본다. “나한테 무슨 소질 있구나, 이런 게 맞겠구나”를 알게 되고 “다양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삶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다양성에 주목하면서 여성은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끌어낸다. “강해지고 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악물고 공부도 더하게 된다”.

이처럼 새롭게 싹트기 시작한 여성들의 새로운 욕망은 기관의 도움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듬어져 현실 가능한 욕망으로 모양지어 간다. 이에는 일상에서의 책임을 내포한다. 욕망의 구체화 과정을 통해 여성들은 사회에서 인정하는 영역에서 돈을 벌고 그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으로 안착하고자하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자 욕심을 낸다. 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 대해 알다보니 여러 가지 꿈들이 혼재하던 예전과는 달리 자신의 꿈이 뚜렷하게 되었음을 자각한다. 아울러 이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신이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꿈에 대한 욕망은 더 강해지고 선명해 진다. 학력을 연장하거나 취득하는 것,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욕망하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고, 그것은 이들 여성에게 ‘성장’으로 경험된다. 이제 여성들은 꿈 실현에 대한 바람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끊임이 없이’ ‘욕심’을 품는다.

**평범한 세계에의 합류(의욕)** 새로운 욕망 생성이 종국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낙인이 주어지지 않는 “정상세계”에 합류하여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들이 꿈꾸는 것은 그들의 용어로 “평민”,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 “평범한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는 것”이다.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 이들 여성이 갈망하는 것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일자리를 갖는 것, 바깥세상의 “정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것을 통해 고립(단절)되지 않고 사회와 연결감을 갖는 것이다. 그간 사회적 배제를

가속화 시켰던 간극을 채우기를 원한다. 이러한 마음을 여성7은 다음처럼 드러낸다.

근데 지금 (지원이) 1년이면 끝나는데... 한 1년이나 더 연장이 됐으면 하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나? 그쵸? 내 생각에는 한 1년만 더 연장이 돼줬으면 좋겠구만... 그게 걱정이라 딱게 걱정이 아니고(여성7)

#### (4) 새로운 자기욕망의 확장 단계: 새로운 자기욕망의 사회적 확장

**사회적 자본의 확장** 자기욕망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확대해가고, 타인의 삶과 자신을 연결지으려 한다는 점에서 이 단계의 여성의 욕망확장은 '사회적'이다. 자활 서비스를 받으면서 여성들은 '사회적 자본'을 확장해 간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에 다니기를 기관에 요구하거나, "졸업을 안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는 것을 알고 "대학까지는 가야죠"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자연스럽게 기관 내외의 인적, 물적 망과 접촉한다. 이 접촉을 통해 기관과 활동가가 가진 사회적 자본은 여성들의 사회적 자본으로 대치된다. 즉, 기관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여성의 사회적 자본으로 전이되고 진화되는 것이다. "앉아서 화투나 치고 술이나 먹고 깡판이나 죽이는 것 밖에 모르는" 자신이 "우물안 개구리"였음을 자각하고, "한번은 좀 제대로 살아보자"는 각오와 이를 위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많은 사람을 접촉해 보고자"하는 의욕을 갖게 한다. 즉, 사회적자본의 의도적(주체적)확장을 통해 능력(capacity)을 증가시켜가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이다.

**자기위치에 대한 시선변화** 여성은 "사회적 일자리"를 하면서 동료의 "장례식도 몇 번" 가보고, "여기 저기 뛰어다니면서 수수료 해갔고, 장례비 마련해서 장례 치러드리는 경우"등도 경험하면서, 활동가의 관점을 공유하고 활동가의 시선으로 동료를 바라보게 된다. 아울러 자신이 피해자임을 인식하면서 여성은 자신이 처한 사회구조 내에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의하는 전환을 경험한다. 자신을 "몸과는 여자"가 아닌 "기지촌의 고용자"나 "사회적 위안부"로 재구성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구조적으로 자기위치를 파악함을 의미함과 동시에 자신의 피해상황을 사회에 고발하고, 억울함을 표현하고자하는 의지이기도 하다. 여성들은 자신의 지난날의 어려움이 자기 잘못이 아니었다는 사실과 그간의 불합리한 삶의 배경을 이유로, 사회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치에 처해왔음을 인지하면서, 이에 스스로에게, 동료들에게 측은지심을 갖는다. 그래서 "언니들이 너무 불쌍하고", "진짜 마음이 아프고", 성매매현장에서 "못나온 사람들이 계속 마음에 걸리고",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다", "내가 받았던 걸 다시 돌려주고 싶다"고 생각한다.

**욕망충족의 범위 확장** 자신의 과거의 삶 뿐 아니라 일반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대해 자매애의 관점으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여성의 욕망의 범위도 확대되어 간다. 성매매의 피해로 인해 자멸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잘 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어느 한 순간에" 알게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우러져서, 어우러져서 풍족하진 못하더라도" 더불어 가는 세상을 꿈꾼다. 여성은 현재까지의 자기 삶의 경험을 폄하하거나 반목하지 않고, 이를 통해 느꼈던 것들을 기반으로 타인에게

의미있는 자가 되길 소망한다.

고생을 했는데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지금이 나은니까요.. 좀 내가 지금은 그 시절보다 나은니까 내가 겪었던 걸 그 사람한테..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아 나도 이렇게 겪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그런 말이 조금.. 그 사람도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어요(여성22)

즉, 자기욕망의 범위가 자기에서 타인으로 확장되어 간다. 보답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욕망의 대상은 쉼터 선생님을 넘어서, 부모와 익명의 타인 그리고 국가에 까지 이른다. 이것은 자신을 어려운 고통의 과정을 살아낸 사람으로 자각하는 의미와 함께, 자신만이 아닌 타인에 시선을 돌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자신을 생존자로 재해석하고, 원조자의 위치에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같은 처지의 동료들에게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을 정도로 성장을 확신한다.

## 2) 자활과정 문항구성

이상의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 과정에 대한 경험 분석을 통해 자활 과정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문항은 모두 24개로 그 내용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과정척도개발을 위한 문항 구성안

영역	지표	문항
새로운 자기욕망의 조건화 단계	도와주는 사회적 존재의 경험	1. 나는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도움 받은 느낌이다. 2. 내가 지금 도움을 받는 기관은 내게 안전한 공간이다.
	보호의 경험	3. 나는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 나는 지금 예전과 다르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안전감의 획득	5. 나는 지금 가장 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생각이 든다. 6. 나는 지금 안전하다고 느낀다.
새로운 자기욕망의 준비 단계	타인을 통한 신뢰형성	7. 나는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8. 나는 이 세상에 내편이 있다고 생각한다. 9. 나는 요즘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다.
	자기신뢰의 형성	10.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11. 나는 요즘 점점 자신감이 생긴다. 12. 요즘 들어 성격이 활발해 진 것 같다.

새로운 자기욕망의 구축 단계	새로운 자기욕망의 생성	자기욕망의 발아	13. 나는 요즘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의욕이 있다. 14. 나도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자기욕망의 구체화	15. 나는 내 미래를 위한 꿈과 목표가 있다. 16. 나는 요즘 내가 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평범한 세계에의 합류(의욕)	17. 나는 인정받는 삶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 18. 나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은 의욕이 있다.
새로운 자기욕망의 확장 단계	새로운 자기욕망의 사회적 확장	사회적 자본의 확장	19. 나는 전보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졌다 20. 나는 전보다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 많아졌다.
		자기위치에 대한 시선변화	21. 나의 지난 삶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22. 부당한 일을 보면 그것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 하고 싶다
		욕망의 충족의 범위확장	23.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24. 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 5. 자활과정 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과 측정방법

### 1) 자활과정 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결과

#### (1) 내용타당도 검증

구성된 자활과정 문항은 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의 현장 활동가들과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이들은 4개 영역에 따른 11개 지표와 24개 문항에 대해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자활 과정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들을 하였다. 다만, 문항속에 포함된 몇 개의 단어들이 다소 낙인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문항들을 수정·보완하였다.

#### (2) 기초문항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문항과 척도에 대한 기초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최종 문항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분석하였다. 이는 평균과 표준편차의 극단적 점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통계치의 분석 결과, 평균은 2.69에서 3.40까지 그리고 표준편차는 .57에서 .81로 극단적인 점수가 없었다. 따라서 도구개발을 위한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개별문항과 척도의 총점간의 상관관계분석은 자활과정척도가 동질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문항-척도 상관계수가 0.3, 문항-전체척도 상관계수 0.2 이상일 때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Kline, 1993; 김양

희·정경아, 1999). 자활과정적도와 개별 문항들 간의 상관계수는 <표 5>와 같이 .5이상으로 모두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표 5> 문항의 평균·표준편차 및 문항-척도 상관관계

문 항	N	Mean	Med -ian	SD	상관관계
1. 나는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도움 받은 느낌이다.	242	3.24	3	0.62	0.535 **
2. 내가 지금 도움을 받는 기관은 내게 안전한 공간이다.	241	3.40	3	0.57	0.600 **
3. 나는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40	3.29	3	0.58	0.651 **
4. 나는 지금 예전과 다르게 보호받고 있다	241	3.27	3	0.61	0.627 **
5. 나는 지금 가장 큰 어려움으로부터 구출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240	3.10	3	0.72	0.624 **
6. 나는 지금 안전하다고 느낀다.	241	3.12	3	0.68	0.650 **
7. 나는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241	3.08	3	0.75	0.667 **
8. 나는 이 세상에 내편이 있다고 생각한다.	241	3.05	3	0.75	0.656 **
9. 나는 요즘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다	242	3.26	3	0.61	0.708 **
10.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240	3.02	3	0.75	0.621 **
11. 나는 요즘 점점 자신감이 생긴다.	240	2.91	3	0.80	0.743 **
12. 요즘 들어 성격이 활발해 진 것 같다	239	2.85	3	0.77	0.672 **
13. 나는 요즘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의욕이 있다	242	3.19	3	0.71	0.625 **
14. 나도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239	3.11	3	0.72	0.671 **
15. 나는 내 미래를 위한 꿈과 목표가 있다.	241	3.19	3	0.70	0.545 **
16. 나는 요즘 내가 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240	3.05	3	0.70	0.668 **
17. 나는 인정받는 삶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	241	3.27	3	0.67	0.633 **
18. 나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은 의욕이 있다.	240	3.04	3	0.70	0.607 **
19. 나는 전보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졌다.	239	2.90	3	0.73	0.689 **
20. 나는 전보다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 많아졌다.	240	2.88	3	0.69	0.677 **
21. 나의 지난 삶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239	2.69	3	0.81	0.393 **
22. 부당한 일을 보면 그것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 하고 싶다	240	3.01	3	0.68	0.506 **
23.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242	3.33	3	0.57	0.637 **
24. 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241	3.34	3	0.60	0.658 **

p < .01

### (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자활과정 예비척도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적합도는 KOM(Kaiser-Meyer-Olkin)과 Bartlett에 의해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KMO의 표본적합도(MSA)는

.903으로써, '보통 수준의 값(Mediocre)'의 기준을 부합시키고 있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chi^2 = 3013.371$ ,  $p = 0.000$ 로 유의수준 0.01에서 상관계수행렬이 단위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측정변수간의 상관성이 인정되어 요인분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상관행렬의 고유치(eigen value)는 4개의 요인 각각에서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4개의 요인이 적절하다고 판명되었다. 4개 요인의 전체 설명분산은 61.184%로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자활과정척도의 요인적 재량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공통분
4번문항 : 나는 지금 예전과 다르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769				.649
2번문항 : 내가 지금 도움을 받는 기관은 내게 안전한 공간이다.	.761				.668
1번문항 : 나는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도움 받은 느낌이다.	.710				.603
7번문항 : 나는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697				.639
5번문항 : 나는 지금 가장 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생각이 든다.	.673				.539
6번문항 : 나는 지금 안전하다고 느낀다.	.663				.578
3번문항 : 나는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647				.564
11번문항 : 나는 요즘 점점 자신감이 생긴다.		.732			.740
10번문항 :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658			.608
12번문항 : 요즘 들어 성격이 활발해진 것 같다.		.647			.665
20번문항 : 나는 전보다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 많아졌다.		.592			.540
8번문항 : 나는 이 세상에 내편이 있다고 생각한다.		.564			.627
19번문항 : 나는 전보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졌다.		.546			.534
21번문항 : 나의 지난 삶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533			.460
15번문항 : 나는 내 미래를 위한 꿈과 목표가 있다.			.789		.685
13번문항 : 나는 요즘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의욕이 있다.			.719		.690
16번문항 : 나는 요즘 내가 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695		.651
14번문항 : 나도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637		.670
18번문항 : 나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은 의욕이 있다.				.687	.592
23번문항 :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628	.586
22번문항 : 부당한 일을 보면 그것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다.				.626	.584
17번문항 : 나는 인정받는 삶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				.603	.693
24번문항 : 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다.				.576	.584
9번문항 : 나는 요즘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다.				.442	.535
고유값	9.601	2.289	1.440	1.354	
설명변량	40.003	9.539	6.002	5.640	
누적변량	40.003	49.542	55.544	61.184	

문항 개발 당시의 의도와 달리 요인 2의 문항 7번은 요인 1로 포함되고, 요인 2의 문항 9번은 요인

4에 포함되고, 요인 4의 문항 19번, 20번, 21번은 요인 2에 포함되고, 요인 3의 문항 17번, 18번은 요인 4에 포함되어 4개 요인으로 최종 분류되었다.

요인 1을 구성하는 7개 문항들은 자활체계 진입 이후 처음으로 겪는 사회적 보호망의 경험, 그리고 사회적 보호망의 경험을 통해 안심감, 안도감, 보호감을 느끼고,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자로서 자기 존재감을 수립하여 자활과정의 첫 시작의 단계로 들어오게 되는 조건형성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요인 1에 포함되는 자활단계는 '새로운 자기욕망의 조건화 단계 : 사회적보호의 경험'이라고 명명하였다. 문항 7번의 경우, 예비문항에서는 '관계를 통한 신뢰형성' 단계로 분류되었었지만, 마음을 터놓고 말한다는 것이 자신을 지켜주는 공간에서 만난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행위로써, 보호·안전감의 의미가 더욱 부여된다고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사회적 보호망의 경험(요인 1)'요인에 더 큰 요인 부하량을 보인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요인 2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속한 문항들은 주로 자기신뢰로부터 기인한 자신감, 자기 긍정을 나타내고, 자기 신뢰가 생성되는 만큼 내·외적 자원을 활용하는 자신감이 생성되고, 자기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과거를 긍정적으로 회고하거나,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이 있다라는 자기긍정의 힘과 관련된 내용이다. 따라서 요인 2에 포함되는 자활단계는 자활과정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자기욕망의 준비단계 : 관계를 통한 신뢰형성'이라고 명명하였다. 19번, 20번, 21번 문항의 경우, 예비문항에서 '새로운 자기욕망의 사회적 확장' 단계로 분류되었었지만, '관계를 통한 신뢰형성(요인 2)'요인에 더 큰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문항 19번과 20번의 경우, 사회적자본의 확장의 결과로 해석되기보다 사회적자본의 확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개인의 내적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할 경우, 요인 2로 묶이는 것은 타당한 결과이다. 즉, 사회적 자본 확장이 사회적 관계의 확장과 관계의 쌍방 교류성을 내포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무력한 상태가 아닌, 타인의 신뢰나 자기신뢰가 전제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따라서 요인 2에 더 큰 요인 부하량을 보이는 것은 타당한 결과로 본다. 문항 21번의 경우, 자신의 지난 삶의 긍정적 회고는 자기 신뢰의 총체적 결과로 나타나는 궁극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와 같이 문항 21번이 '관계를 통한 신뢰형성(요인 2)'로 묶여지는 것은 적절한 결과로 본다.

요인 3은 미래의 꿈과 목표가 있다는 것, 무언가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는 것, 책임을 가지고 일을 수행한다는 것, 나도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의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은 세상에의 합류에 대한 마음속의 꿈틀거림을 알아채고, 동기가 충만히 형성되어 무엇인가 하고 싶고 해내고자 하는 의욕이 가득한 단계이다. 따라서 요인 3에 포함되는 자활단계는 '새로운 자기욕망의 구축단계 : 새로운 자기욕망의 생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총 6개 문항으로, 개인 내부에 한정되어 있던 자기욕망의 시야를 사회적으로 더욱 확장시키고 싶어 하는 욕망과 더불어 어려운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위로의 사회적 확장, 그리고 사회적 준거 틀에서도 합당한 행위를 통해 인정을 득하는 행위자로서 확장되고자 하는 욕망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요인 4에 포함되는 자활단계는 '새로운 자기욕망의 확장단계 : 새로운 자기욕망의 사회적 확장'이라고 명명하였다. 9번 문항은 예비문항에서 '관계를 통한 신뢰형성' 단계로 분류되었고, 17번, 18번 문항은 '새로운 자기욕망의 생성' 단계로 분류되었으나 9번 문항의 타인을

통합 배움의 증가 인식과 18번 문항의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은 의욕의 증가의 경우, 자기욕망의 실현이 구체적으로 안정화된 이후, 사회적으로 더 넓은 만남이나 경우를 통해 자기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17번 문항의 인정받는 삶에 대한 욕심의 경우, 욕망의 실현을 위해 급급하기보다는 자기욕망의 구체화의 안정을 기반으로 사회적 준거 틀에서도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의 사회적 확장을 의미함과 동시에 자신의 자활의 상태에 대한 자신감도 내포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자기욕망의 확장 단계 : 새로운 자기욕망의 사회적 확장(요인 4)' 요인에 더 큰 요인부하량을 보인 것은 온당한 결과로 판단한다.

#### (4) 신뢰도 검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수정된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과정 척도의 신뢰도를 검사하기 위해 문항의 내적일치도를 확인하였다. 신뢰도 검증결과, 각 영역 모두 내적일치도를 설명해주는 Cronbach alpha 값이 .823에서 .871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전체 24문항의 신뢰도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932)으로 확인되었다(〈표 7〉 참조).

〈표 7〉 수정된 척도의 신뢰도

척도	Cronbach's alpha	n
자활과정척도 (전체)	.932	225
1요인(문항1,2,3,4,5,6,7) "사회적보호망의 경험"	.871	236
2요인(8,10,11,12,19,20,21) "관계를 통한 신뢰형성"	.855	233
3요인(13,14,15,16) "새로운 자기욕망의 생성"	.829	238
4요인(9,17,18,22,23,24) "새로운 자기욕망의 사회적 확장"	.823	239

#### (5) 자활과정 척도의 영역별 점수 분포

아래의 〈표 8〉은 이상에서 검증된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성매매피해여성 총 243명 에 대한 자활과정 척도의 각 요인별 점수분포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각 요인별 최소, 최대점수가 다른데, 요인 1과 요인 2는 최소 7점에서 최대 28점, 요인 3은 최소 4점에서 최대 16점, 요인 4는 최소 6점에서 최대 24점의 점수분포를 가질 수 있다. 각 요인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요인 1 '사회적 보호의 경험'은 22.53점(백분율 환산 80.46점), 요인 2 '관계를 통한 신뢰형성'은 20.32점(백분율 환산 72.57점), 요인 3 '새로운 자기욕망의 생성'은 12.55점(백분율 환산 78.43점), 요인 4 '새로운 자기욕망의 사회적 확장'은 19.25점(백분율 환산 80.20점)이다.

〈표 8〉 자활과정 척도의 백분율환산점수

요인	문항수	최소-최대 점수	백분율환산 최소-최대점수	평균 점수	백분율환산 점수
요인1 : 사회적 보호망의 경험	7	7-28점	25-100점	22.53	80.46점
요인2 : 관계를 통한 신뢰형성	7	7-28점	25-100점	20.32	72.57점
요인3 : 새로운 자기욕망의 생성	4	4-16점	25-100점	12.55	78.43점
요인4 : 새로운 자기욕망의 사회적 확장	6	6-24점	25-100점	19.25	80.20점

요인 1을 제외하고 요인 2, 요인 3, 요인 4가 순차적으로 높은 점수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보호의 경험' 단계(요인1)의 백분율 환산점수는 80.46으로 순차적 관계에 합당하지 않게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 보호의 경험' 단계는 다른 단계의 개념들(요인 2, 요인 3, 요인 4)과 다른 구성개념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사회적보호의 경험'(요인1)은 순차적인 개념이 아닌 자활과정의 기저에 연속적으로 지속되어지는 전제조건으로 볼 수 있다. 즉, 요인 1의 백분위 점수는 안전감이나 보호감의 획득을 통한 자활체계 진입의 가장 밑바닥의 조건형성으로서 요인 2, 요인 3, 요인 4의 순차적 단계로의 진입에 대한 동기화 지속여부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요인 2, 요인 3, 요인 4의 점수가 순차적으로 높아질 때, 요인 1의 백분위점수가 가장 적은 점수를 갖기보다(순차성을 띠기보다), 가장 많은 점수를 갖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2) 자활과정 척도의 측정방법

지금까지 자활과정 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통해 '새로운 자기욕망의 조건화단계' 7문항, '새로운 자기욕망의 준비단계' 7문항 '새로운 자기욕망의 구축단계' 4문항, '새로운 자기욕망의 확장단계' 6문항의 총 24문항인 수정된 척도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지표 수정과 함께 최종적으로 수정된 자활과정 척도는 아래 〈표 9〉와 같다.

자활과정 척도는 성매매피해여성이 자활의 과정 중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게 해 줌으로써 자활을 위한 개입의 방향과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자활과정은 사회적 보호망의 경험, 관계를 통한 신뢰형성, 새로운 자기욕망의 생성, 새로운 자기욕망의 사회적 확장의 4단계로 구성된다. 자활과정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보호망의 경험' 단계를 제외한 다른 순차적 단계들의 백분위 점수 중 점수가 가장 높은 단계를 해당 여성의 자활의 단계로 판정한다.

둘째, 순차적 단계들의 점수가 모두 현저히 낮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보호망의 경험' 단계의 점수가 높은 경우는 '사회적 보호망의 경험' 단계를 해당 여성의 자활의 단계로 판정한다.

〈표 9〉 수정된 자활과정 척도

영역		지표	문항
새로운 자기욕망의 조건화 단계	사회적 보호망의 경험	도와주는 사회적 존재의 경험	1. 나는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도움 받은 느낌이다. 2. 내가 지금 도움을 받는 기관은 내게 안전한 공간이다.
		보호의 경험	3. 나는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 나는 지금 예전과 다르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안전감의 획득	5. 나는 지금 가장 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생각이 든다. 6. 나는 지금 안전하다고 느낀다. 7. 나는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새로운 자기욕망의 준비 단계	관계를 통한 신뢰 형성	타인을 통한 신뢰형성	8. 나는 이 세상에 내편이 있다고 생각한다. 9. 나는 전보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졌다.
		자기신뢰의 내현화	10.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11. 나는 요즘 점점 자신감이 생긴다. 12. 나의 지난 삶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자기신뢰의 외현화	13. 요즘 들어 성격이 활발해 진 것 같다. 14. 나는 전보다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 많아졌다.
새로운 자기욕망의 구축 단계	새로운 자기욕망의 생성	자기욕망의 발아	15. 나는 요즘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의욕이 있다. 16. 나도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자기욕망의 구체화	17. 나는 내 미래를 위한 꿈과 목표가 있다. 18. 나는 요즘 내가 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자기욕망의 확장 단계	새로운 자기욕망의 사회적 확장	자원망의 사회적 확장	19. 나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은 의욕이 있다. 20. 나는 요즘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다.
		성취의 사회적 확장	21. 나는 인정받는 삶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 22.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자기재인식의 사회적 확장	23. 부당한 일을 보면 그것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 하고 싶다. 24. 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셋째, '사회적 보호망의 경험' 단계의 점수가 현저히 낮고, 다른 단계들의 순차적 과정 중 특정 단계의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판정된 해당 단계의 신빙성을 면접 등의 방법을 통해 검토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보호망의 경험'은 자활과정의 첫 단계이자 동시에 모든 자활과정의 기저에 작용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보호망의 경험'은 자활의 전 과정에 작용하면서 각 자활과정들의 생성을 밑받침하는 기본 조건이므로 자활과정 척도 결과를 해석할 때 '사회적 보호망의 경험'은 자활의 순차적 과정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다른 자활과정들을 보완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여성이 '사회적 보호망의 경험' 점수가 높으면서 '자기욕망의 생성' 단계에 있다면, 그 여성의 자기욕망 생성은 안전감을 획득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자기욕망을 생성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여성이 '사회적 보호망의 경험'의 점수가 낮으면서 '자기욕망의 생성' 단계에 있다면, 그 여성의 '자기욕망의 생성'은 좀 더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여성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척도에서 판정된 단계에 대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활 과정의 모든 단계의 점수가 현격히 낮게 나타난 경우는 자활과정에서 성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단계에 아직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 6. 결론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자활의 시스템에 들어온 성매매피해여성들은 “새로운 자기욕망의 생성과 확장”이라는 자활의 과정을 경험한다. 상담소나 센터에 들어와 제공되는 지원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적 보호(망)를 경험하고, 기관 활동가와의 관계를 출발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자기욕망을 생성하고, 더 나아가 이 새로운 자기욕망을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직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순환적으로 때로는 반복되면서 피해여성들의 유입시기와 상황 여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자활 시스템에 들어와 경험하는 자활의 과정은 이러한 단계를 공통적으로 거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자활의 과정이 그 자체로 완결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자활을 노동시장에 나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사는 것이라는 본다면, 현재의 자활 시스템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자활시키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자활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사실, 정부와 사회가 요구하는 자활의 최종 지점은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논점은 이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이 쉽지 않은 것을 현장의 활동가들 혹은 현장의 기관들에만 일임하고 ‘결과’만을 보자는 것은 정부의 책임 전가이자 현장에 대한 착취이기도 하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자활의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노동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자체에는 너무도 많은 준비와 시간이 소요된다. 빈곤과 내면화된 사회적 낙인으로 자신을 이 세상에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규정하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 자신을 재위치 지우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시스템 안에서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생성하기까지 많은 투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투입으로 인해 생성되는 성매매피해여성의 변화는 그 진폭이 매우 커서 어떤 경우는 마치 종교적 회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거대한 전환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전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 준비는 미완적이다. 미완의 핵심은 그 전환적 변화를 지속하게 하여 노동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짧은 점, 그리고 일자리 경험과 같이 다차원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자활의 요소에 대한 지원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즉, 자활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규정한다고 해도 현재의 시스템은 이 기준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의 자활 시스템은 이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에의 재유

입을 막을 수 있는 경제적, 사회 심리적 힘을 키워주고 준비시켜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충분성이 라는 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활을 긴 시간이 필요한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다른 어떤 집단보다 성매매 피해여성은 그 피해의 흔적이 강하고 깊어 이것을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성매매 피해여성의 특수성이 자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기간을 주고 일률적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노동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자활의 당사자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시장에 취업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능력을 갖추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자활을 정의하게 되면, 정부가 정한 자활의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활의 성공률은 지금 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부가 정한 자활의 기간을 지나서 자활에 성공한 여성들의 수는 급격히 올라간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활은 획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피해여성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시간과 기간을 요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자활과정 척도 개발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의 과정도 직선적이지 않은 자활과정을 가시화시켜 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활지원을 받는 성매매피해 여성의 자활과정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이를 통해 해당 여성에 대한 자활지원을 보다 더 개별화하고 초점화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반적 자활 연구가 자활의 수준 즉, 결과로서의 자활에 초점을 두고 이를 측정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왔다면 본 연구는 그동안 가시화되지 않은 자활의 과정을 척도화했다는 점에서 현장 실천가들의 자활지원 노력을 보다 가시화해 주고, 이들의 지원 방향을 제시해 주는 도구라는 점에서 성매매피해여성을 지원하는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강병구. 2002.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동시장성과 및 정책과제". 『공공경제』 7(1): 79-105.
- 김수현. 2000.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지원 : 그 이상과 현실".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20(4): 191-208.
- 김양희·정경아. 1999.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김윤희. 2005. "인천송의동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연구 - 성매매방지법과 시범사업에 의한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인숙. 2008. "자활 개념의 재구성에 대한 탐색 -성매매여성 자활 현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2: 95-129.
- 김주섭. 2006. "빈곤계층 대상 직업훈련의 실태와 성과 - 자활대상자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노동리뷰』 7: 25-39.
- 박광덕. 2004. "공공부조정책의 자활사업에 관한 평가".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1-15.
- 박진희. 2006. "탈빈곤을 위한 자활직업훈련성과 결정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2(2): 209-226.
- 손능수.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의 효과성 평가 -대구광역시 자활후견 기관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7: 729-759.
- 신경림 역. 1998. 「근거이론의 단계」. Anselm Strauss and Juliet Corbin. 1990. Basics of Qualitative

-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현문사.
- 신명호. 2006. "자활사업의 효과, 제대로 평가하자". 「도시와 빈곤」 80: 19-45.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2007. 「성매매방지현장의 실천과 쟁점」. 서울: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 오영훈. 2005. "자활직업훈련 효과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24(3): 317- 341.
- 우순열. 2006. "탈성매매여성의 자활지원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탈성매매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록. 2003. "자활사업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식과 태도가 자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21: 105-136.
- 이상록·진재문. 2003. "지역사회 탈빈곤 정책의 효과 분석: 경남, 전북지역 자활 후견기관 운영의 성과 및 한계 분석과 개선방안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학」 52: 241-272.
- 이석원·정희정. 2007. "자활사업의 유형별 고용촉진 효과분석 - 노동부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4): 149-175.
- 이영하·조원탁. 2004. "한국 자활사업의 자활효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자활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0: 217-244.
- 이영철·김소정. 2009. "자활사업 집행기관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효과에 미치는 영향 -위계선형모형(HLM)의 적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2): 227-252.
- 임동진. 2001. "자활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 「한국행정정보」 35: 75-97.
- 조용환. 1999. 「질적 연구 :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정수연. 2007.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정책 분석연구 -탈성매매여성의 자활과정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원오·김진구. 2005.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주관적 평가와 자립전망 - 경기지역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8: 35-67.
- 최준. 2007. "빈민 자활이 성매매 여성 자활에게".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편. 「중이학 희망소식」. 서울: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14-16.
- 최희경·정경숙. 2009. "집결지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의 탈(脫) 성매매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6(1): 413-435.
- 허만형. 1995.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제적 자활자립 성취요인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4(1): 209-233.
- Anthony, Jerry. 2005. "Family Self-Sufficiency Programs: An Evaluation of Program Benefits and Factors Affecting Participants' Success", *Urban Affairs Review* 41(1): 65-92.
- Cancian, Maria. 2001. "Rhetoric and Reality of Work-Based Welfare Reform", *Social Work* 46(4): 309-314.
- Dean, Hartley. 2003. "Re-conceptualizing Welfare-To-Work for People with Multiple Problems and Needs", *Journal of Social Policy* 32(3): 441-459.
- Kline, James J. 1993. "State Governments' Growing Gains from TQM", *National Productivity Review*, Spring 12(2): 259-271.
- Raheim, Salome. 1997. "Problems and Prospects of Self-Employment as an Economic Independence Option for Welfare Recipients", *Social Work* 42(1): 44-53.
- Rubin, Allen, and Earl Babbie. 2001.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4th ed.).C.A: Brool/cole.

## Developing a Scale for Self-Sufficiency Process of the Female Victims of Prostitution

**Kim, In-Sook**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Lee, Eun-You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Ha, Ji-Seou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lf-sufficiency of the female victims of prostitution has been understood as a 'result' at a particular moment focusing on an economic self-sufficiency. Overcoming such limitation, this study originates from a problem posing that evaluating self-sufficiency of the female victims of prostitution should be approached as a series of 'processes' in which experiences of the victims are integrated. The methodology of the study included a questionnaire survey with questions designed based on the self-sufficiency experiences which were analyzed through an in-depth interview with 34 female victims of prostitution.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243 female victims of prostitution, and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were verified.

As a result of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 validity of scale in four factors and 24 questions was verified. A reliability of each factor was high ranging from .823 to .871. It could be achieved to make a relatively invisible process of self-sufficiency visible by developing the scale. Subsequently it complements the existing concept of self-sufficiency and overcomes limitations of measuring its results, hence reflecting the reality of the self-sufficiency practices.

**Key words:** Female Victims of Prostitution, Self-Sufficiency Process, Scale Development, Qualitative Research, Quantitative Research

[논문 접수일: 09. 09. 02, 심사일: 09. 09. 16, 게재 확정일: 09. 09. 29]